

## 룻기 1 장

1. 사사기는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끝없이 반역한 이야기이다. 반면에 룻기는?

**순종하고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 그리하여 믿음의 대열에 합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아주 요긴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야기이다.

2. '엘리'는 나의 하나님, '엘렉'은 왕이란 뜻이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이다. 부모의 신앙이 좋았던 것 같다. 나중에 보면 그의 근족 보아스의 지위도 상당한 것으로 보아 엘리엘렉은 베들레헴의 유력 인사(유지)였던 것 같다. 1장에서 근거를 찾는다면?

- 1) 나오미의 귀환에 성음이 떠들썩하였음(19)
- 2) 나갈 때 풍족하였음(1:21)

3. 흉년을 피하여 잠시 떠났다고 말할 수 없는 증거는?

**10년이나 거주함:** 단순하게 흉년 때문이라면 몇 년 만에 돌아와야 한다.

**이방 여인과 결혼시킴:**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신 일이었다. 더구나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신 23:3)고 하였다. 이방으로 간다는 것은 이방신을 섬긴다는 뜻이다.

**풍족함(21):** 먹고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4. 누구에게나 흉년은 다가온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시대에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도 흉년은 다가온다. 그렇다고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갈 수 있느냐?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면 그 모압으로 갈 수 있느냐? 말이다. 잠시 갔다가 곧 돌아오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실수다. 고 3인데 일년 만..., 시집갈 때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에게 이런 잔머리는 너무나 위험하다. 잠시 피했다가 곧 돌아오리라고 깃을 것임을 보여주는 단어를 하나 찾는다면?

**우거하였는데(1):** 잠깐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평생이 되어버린 예도 적지 않다. 야곱도 몇 날이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외삼촌 집으로 갔지만 다시는 어머니를 만나지 못한 채 20년 세월을 보냈다.

5. 룻의 아름다움이 더 빛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 어두운 사사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보여줌,
- 이방인으로서,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에 들지 못한다는 모압 족속,
- 이방여인과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우상숭배에 빠질 위험 때문인데 그 반대의 결과가 생김

6. 내리막길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출발점은?

**고향소식을 들음이다:** 집 나간 탕자의 경우에도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풍년을, 모든 이방이 보기에든 명백하게 은혜를 베푸셨다(6).

7. 룻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방법은 고국에서 새 남편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16-17절과 같은 놀라운 결심이 가능했을까? 다음 보기 중에서 고르든지 아니면 새로운 답을 찾아보자.

- 1) 나오미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 2) 인간적 신실함에 따라 불쌍한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 3) 세상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함 때문이다.

1번 아닐까? 어쩌면 2번이었는데 결과적으로 1번이 된 건 아닐까?

8. 시어머니를 따라나선다면 어떤 어려운 점이 예상될까?

새 남편 포기, 자식 없이 시모를 봉양해야 함, 친구와 고향을 떠나야 함, 한국에 시집온 일본여자처럼 민족에 대한 차별.

9. 다른 것 다 있어도 남편도 아들도 없으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이다. 그 당시 특히 유대에서는 남편 없는 여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 나오미와 룻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자 아니냐?

남은 것이라고는 하나님뿐이다. 실상은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다.

10.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무슨 득을 볼 게 있다고? 차라리 고향에 남아 다른 남자를 찾아보는 것이 낫지! 과부 둘이 서로 의지하면 도움이 된다?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서로 짐이 될 뿐이었다. 이렇게 멍청한 판단이 어떻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는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멍청한 판단일지 몰라도 신앙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엄청난 결단이다. 시어머니를 따라간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동시에 이스라엘의 신을 섬긴다는 뜻이다.

11. 우리가 보기에 나오미는 살아 보겠다고 축복의 땅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은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는 룻의 고백을 보면 룻이 보기에는 좀 달라 보였던 모양이다. 룻이 보는 나오미의 처지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계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

12.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주인공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남자들은 안 되겠다. 변화를 가장 많이 겪는 사람이 주인공인 법인데...?

나오미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볼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이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신앙의 길로 접어들었다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수레의 두 바퀴처럼 나오미와 룻이 이야기의 주인공이겠지만 나오미에게 조금 더 표를 주는 것이 좋겠다. 말하자면 나오미의 회복을 위한 도구로 룻과 보아스를 등장시켰다고 볼 수도 있겠다.

13. 주민등록번호는 같은 번호가 생기지 않도록 시간과 공간, 성별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다. 룻의 이야기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과 공간적인 배경을 바탕에 깔고 있는가?

**시간적인 배경:**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복되는 혼란의 시대(삿 21:25)

**공간적인 배경:** 그 땅.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땅, 좁게는 유다 베들레헬이다.

14. 엘리멜렉의 이름 뜻은 ‘나의 하나님의 왕이시다’이다. 그 시대에 도전적인 이름이지만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다. 유다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며 불신앙적 도피다. 이름값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는가?

말씀을 펴고 원인을 찾아야 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야 했다. 우상 그모스의 땅, 하나님께서 특별히 싫어하시는 나라로 피하여 갈 것이 아니다.

15. 나오미의 계획은 남편 엘리멜렉이 죽는 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한다. 남편이 죽었을 때 돌아왔어야 했다. 남편이 죽어도 희망이 있었다. ‘아들이 둘이나 있는데...’ 그래서 결혼을 시켰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었다. 형이 죽었을 때 돌아왔어야 했다. ‘그래도 아직 아들이 있는데...’ 결국 동생마저 죽어버렸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돌아왔을까?

대체로 끝장을 보고서야 돌아서는가? 집 나간 탕자도 그랬다. 많은 간증자들이 그렇다. 그러나 첫 번 징계에 돌아서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다.

16. 남편과 말론, 기료가 죽자 한 지붕 세 가족이 변하여 몇 가족이 되었는가?

**0 가족:** 아들이 없는 가족은 기업을 이을 수 없다.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실한 증거다.

17.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는 절망 상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낙심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쉬울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혼자라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은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에 있는 것이다.

며느리를 놓아두고 혼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온 성음의 화젯거리다. 얼마나 부끄럽고 남사스러울지 모른다. 선택하기 어려운 길이다. 나오미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가는 것이다(20-21). 하나님의 징계임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이다. 떠나온 것이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다. 무엇을 바라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 저것 따지면 하나님께 돌아가기 어렵다. 잘못된 자리라면 일단은 떠나야 한다. 계산적인 선택도 아니다. 무조건적인 돌아섬이다. 하나님 품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돌아와야 한다. 남편이 죽었으면 아들이 있을 때 돌아오라. 짐을 풀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오면 기막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룻기의 핵심이다.

18.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여기 권고하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하나님은 회개해도 찾아오시고 끝까지 [개도] 찾아오신다. 그래서 찾아오신다는 말은 ‘권고하사’ 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무엇일까?

**심판하심:** 죄를 갚겠다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것이라고 말한다. 의인에게는 상급이 죄인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문이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상급이 될지 심판이 될지는 바로 당신에게 달렸다.

19. 본 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만 지적한다면?

**돌아오다(가다):** 10번이나 반복된다. 하나님께 무조건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 품에서 죽을 때 죽더라도 돌아와야 한다. 남편이 죽었으면 아들이 있을 때 돌아오라. 짐을 풀기 전에 돌아오라. 돌아오면 기막힌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룻기의 핵심이다.

20. 룻과 오르바의 가장 큰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공통점:** 효성은 지극하였다. 젊은 여인들이 남편을 잃어버리고도 시어미를 공경하며 따랐다.

**차이점:** 룻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

21.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은 신앙적인가? 불신앙적인가?

**인간적이다:** 15절의 그 백성과 그 신에게 돌아가라는 말이 불신앙적인 표현이라고 지적을 받지만 인간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그럴 수 있다. 매사를 신앙, 불신앙으로만 구별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음식이 다 건강에 필요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건강에 별 도움은 안 되지만 재미로 먹는 음식이 있듯이, 신앙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인간적인 사랑에 근거한 말도 할부로 불신이라고 매도해서는 안 된다.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듣는 사람은 잘 새겨 들어야 한다.

22. 이스라엘 역사에서 룻의 선택은 어떤 변화의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악하고 어두운 소멸의 시대(사사기)에서 다윗 왕의 위대한 생성의 시대로 가는 전환점:**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할까? 모래시계의 잘록한 허리인 셈이다. 하나님은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사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은근히 준비하시며 간섭하신다. 아무런 기적도 없는데... 그러나 룻의 이 선택이 엄청난 구속사의 시작점이 된다. 나의 작은 결정이 장차 어떤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모른다.

23. 룻과 오르바 중에 누가 맘며느리일까?

룻은 말론의 부인이다(4:10). 왜 왔다리갔다리 해서 이렇게 헛갈리게 하나? 말론과 기론(2, 5)이라고 했다가 기론과 말론(4:9)이라고 하니... 룻보다 오르바를 먼저 등장시켰으니(4) 동생이 먼저 장가를 들었나? 본문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모양이니 우리도 가볍게 넘길 수밖에!

## 룻기 2 장

1. 이스라엘에는 다른 민족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한 풍습이 몇 가지 있다. 2장에서 두 가지를 찾아보자.

**추수시 가난한 자를 위한 제도(2:2, 9, 15, 16, 추가, 레 19:9, 23:20):** 추수하다가 떨어진 것, 귀퉁이는 가난한 자의 룻이다.

**무르기 제도 2:20(3:12, 13, 4:1-4):** 고엘 제도라고 한다. 히브리어 '고엘'은 '되찾다, 무르다, 구속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하나님께 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것이다.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가 고엘(Goel)이 되어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고(레 25:25, 26)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을 져야 했으며(민 35:12, 19, 21) 그 친족의 미망인과 결혼하여 대(代)를 이어주어야 함(계대 결혼제도)은 물론, 심지어 그 친족의 짚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다(민 5:8).

2. 신앙도 좋고 돈도 있는 사람이 신앙감으로 최고다. 나이가 많다는 한 가지 흠이 있지만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다. 본문에서 증거를 찾아보라.

**신앙(4):** 보아스와 일꾼의 인사가 예사롭지 않다. 보아스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일꾼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다'라고 화답했다.

**돈(1):** 유력한 자요, 많은 일꾼을 거느린 발주인이다.

보아스는 나오미의 가정회 회복시킬 사람으로 등장한다. 능력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구해낼 능력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민망히 여기)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3. 늙고 힘없는 시어머니를 따라 외국으로 가는 길은 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데 결과는 큰 축복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되기까지 룻의 희생적인 태도가 돋보인다. 본문에도 결과적으로 큰 복이 된, 자신의 희생을 각오하는 발언은 무엇인가?

**발에 가게 하소서(2):**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젊은 부인이 형편이 어려워져 일하러 갔다가 이런저런 봉변을 당한 일이 한 둘이 아니다(9절 참고, 김동인의 '감자').

4. 성경에는 우연이란 없다. 그럼에도 3절에는 '우연히' 4절에는 '마침'이란 표현이 들어 있다. 정말 우연이란 없을까?

**없다.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을 뿐이다:** 룻기에서 저자는 직접 '하나님께서 ~ 하셨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영적인 해석은 독자에게 맡기고 제삼자의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필연이다. 하나님의 필연은 사람의 눈에 우연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란 말이 전혀 나오지 않는 에스더서에서도 일이 그렇게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5. 사람들의 눈에는 룻이 어떻게 보였을까?

**평판이 아주 좋았다(7, 11):** 주인이 묻지 않은 사실까지 설명하는 것을 보면 사환들 사이에서는 아주 잘 알려져 있었던 모양이다. 보아스도 룻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5) 좋은 소문을 듣고는 있었다(11).

6. 보아스는 모압 소녀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딸(8):**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는 말이다. 사환들은 물론 룻 자신도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데(10) 보아스는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찾아왔다고 말한다.

7.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특혜를 베푸는가?

**1) 다른 발에 가지 말라고 함(8):** 이성적인 관심이 아니다. 룻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사시대는 험악한 시대다. 베들레헴 출신 여인이 참혹하게 모독을 당하고 동족간의 피 흘림이 있던 시대이다. 자기 일꾼들에게도 손대지 말라는 것이다.

**2) 소년들의 물을 마시게 함(9)**

**3) 하나님의 복을 빚(12)**

**4) 떡과 볶은 곡식을 나누어줌(14)**

**5) 일부러 홀리게 함(우연을 가장해서)**

**6) 사환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함(15-16):**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얼쩡거리면 짜증나는 법이다. '저리 안 비키나?' 룻에게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지시했다.

8. 룻이 시모를 따라 간 곳은 이스라엘, 베들레헴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인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12):** 룻이 시모를 끝까지 따른 것은 인간적인 효나 연민의 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다. 결국 왕가의 조상이 된다. 신앙을 찾아간 사람들의 나라와 황금을 찾아서 간 사람들이 세운 나라를 비교해 보라.

9. 1:16-17절이 시모를 통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무슨 대답을 하

고 싶었을까?

**2:11:** 다 들었다.

10. 하루 종일 주운 보리가 한 에바면 얼마쯤 될까?

**12되 반이다:** 1말 조금 넘는 양이면 이삭줍기로 얻은 것 치고는 엄청난 양이다.

11. 1장 끝의 분위기는 너무나 서글픈 모습이다. 나를 마라라 하라, 전능자가 나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고 탄식했다. 2장의 끝에 오면 분위기에 어떤 변화가 보이는가?

**원가 빛을 본 사람처럼 나오미의 말이 많아지기 시작했다(20절, 22절):**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희망도 잃은 자에게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다. '보아스라고 하더이다'라는 룻의 대답이 바로 그것이다.

**보리 추수에서 밀 추수까지 룻이 일을 계속함:** 먹고 살기조차 아득했을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셈이다.

12. 룻의 효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 1) 허락을 받고 일하러 감
- 2) 돌아와서 보이고(출필고 반필면)
- 3) 음식을 싸들고 옴
- 4) 자상한 대답 (연속적인 시모의 질문) - 온종일 피곤함에도 차근차근 대답했다.

13.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 '그'는 누구인가?

**보아스:** 사실은 보아스가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모형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신다.

### 룻기 3 장

1. 나오미가 룻의 안식할 곳을 구해야 한단다(1). 청상과부 룻이 안식하게 될 곳이 어디인가?  
**남편:**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결코 안식할 수 없는 불쌍한 존재였다. 나오미가 룻의 남편을 구해 주겠다는 뜻이다.
2. 타작을 왜 밤에 할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보리를 까불리는 일을 밤에 했다. 저녁 무렵부터 밤에 바람이 불기 때문이다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밤새 보리를 까불리고는 타작마당에서 그대로 잔다.
3. 나오미의 명령에 룻이 이유를 든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  
 1) 여자가 어떻게 남자에게 썩스럽게? 더구나 이방인 여자가?  
 2) 과부가 남자의 잠자리에 들어가다니요?  
 3) 어머니가 보아스에게 직접 말하세요.  
 4) 좀 젊은 사람에게 붙여주시지 않고 이런 늙은이에게(10)?  
 반항성 이유를 대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들 수 있음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모압을 떠날 때에는 시어머니의 말에 끝까지 자기주장을 고집하던 룻이 이번에는 순순히 따른다. 시어머니의 말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원리를 따른 것임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중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보아스에게 이렇게 당돌하게 요구한 것은 나오미나 룻도 보아스에게 더 호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4. 보아스의 사려 깊은 점은 무엇인가?  
 1) 여자가 남자의 잠자리에 든 것에 대해서 혹 거리낌이 있을까 해서 현숙한 여자라고 칭찬하고 젊은이를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다. 젊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제일 감사한 일일지도 모른다.  
 2) 순리대로 일을 처리할 것을 약속했다.  
 3) 남에게 흠 잡히지 않도록 처신함: 아침까지 누워 있으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했다.  
 룻의 마음을 다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과 일이 꼬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는 모습이 아름답다. 신앙이 좋으면서 지혜롭지 못하게 처신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무조건 용감한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되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다 하고, 뜻을 다 하고, 힘을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다.
5. '사랑합니다'의 경상도 버전이 '내 아를 낳아도'라던가? 코미디언들이 억지로 만든 말 같아 보인다. 아무리 뼈득장승 같은 경상도 사람이라도 그렇게 직설적이지는 않은데 말이다. 룻은 어떻게 이런 구애의 말을 했는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이라고 번역된 말은 보아스가 말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네게'(2:12) 라는 말의 '날개'와 같은 말이다. 룻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다고 보아스가 먼저 말을 했으니 하나님의 날개와 같은 당신의 날개(옷자락)로 덮어달라는 것이다(겔 16:8 참고). 지혜로운 대답인 동시에 요구다.
6. 당연한 권리가 있으니 공개적으로 기업을 무를 것을 요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육탄공세를 퍼는가?  
 보아스에 대한 믿음 때문 아닐까? 4절의 '그가 네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는 말이 그랬다. 그런 믿음이 전제가 되었겠지만 과감하고 대담한 요구인 것은 틀림없다. 용기를 내야 할 때는 내야 한다. 결과적이긴 하지만 보아스가 지혜롭게 일을 잘 처리했으니 나오미가 노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7.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는 말 중에서 처음 인애(=헤세드)는 무엇이며 나중 인애는 무엇일까?  
 나중 인애가 지금의 일이라면(보아스를 선택한 것 = 죽은 남편의 이름을 남기기 위한 행동, 정육을 따라 젊은이를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늙은 자신을 택한 것, 등), 처음 인애는 이전의 것이다(시모를 선택한 것 = 고향과 친척을 떠난 효성).
8.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에 룻은 섭섭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아스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  
 이들의 결혼이 개인적인 호, 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라면 섭섭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우선은 사람 중심의 일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일이기 때문이다. 나오미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음에도 보아스를 선택한 것은 이 일을 이루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9. 룻이 타작마당에서 잤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아스가 부도덕한 짓을 한 후에 고엘 제도를 핑계삼는다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만약, 더 가까운 친족이 기업 무를 의무를 다 하겠다고 한다면 룻이 타작마당에서 잔 일은 부도덕

한 짓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다. 전혀 잘못이 아닐지라도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할 일은 조심스럽게 처신을 해야 한다. 당사자만 떳떳하면 문제없다는 식으로 너무 당당하지 않아야 할 때도 많다.

10. 7이라는 숫자가 좋아 보이는데 보아스가 보리를 여섯 번 되어준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여섯 번 다음에는 일곱인데?

안식일 규례를 보면 6일간 힘써 일하고 7일에는 쉰다. 룻의 수고가 다 되었음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것 아닐까? 이방인인 룻은 잘 몰랐겠지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무언의 암시를 보내는 셈이다. 룻의 얘기(17)를 들은 나오미는 그 의미를 이해했던 듯하다(18).

11. 본문의 근거로 나오미, 보아스, 룻, 세 사람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나오미의 열성:** 인간적인 노력이지만 율법에 따른 것이며 확신을 가진 일이다. 룻만 믿은 것이 아니라 보아스까지 믿은 셈이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열심은 때로는 위험하기도 하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보아스의 신중함:**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대변하고 있다.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룻의 순종:** 신앙인에게도 이런 모험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다.

## 룻기 4 장

1. 왜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을까? 높은 곳에 올라가면 위험한데?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성문 주위에 있는 광장에 가서 앉았다는 말이다. 이곳은 성읍의 어른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재판도 하는 곳이다. 중요한 상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2. 보아스가 성문에서 기업 무를 자에게 하는 말이 룻이 요청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려달라고 했는데 보아스는 나오미가 땅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팔아 버린 땅을 사서 돌려주는 것이 기업을 무르는 것인데?
3. 기업 무를 자가 처음에는 자신이 무르겠다고 하더니(4) 룻과 관련된 설명을 듣고는 포기하는 이유가 뭘까?  
 팔려는 땅을 사서 자신이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로만 이해했던 모양이다. 더구나 상속인이 없다면 희년이 되어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 말을 듣고 보니 룻이 낳을 아이에게 넘겨주어야 한단다. 결국은 자기 손에 돌아오는 땅은 없이 땅값만 지불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4. 신발을 벗어줌으로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증했다(7).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지 왜 하필이면 신발을 벗어주는 걸까? 무엇에 대한 상징일까?  
 본래는 계대결혼을 거부당한 과부가 모욕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방의 신발을 벗겼다(신 25:9). 명예, 혹은 힘과 권위를 빼앗기는 것에 대한 상징인 셈이다. 그런 율법의 의미에서 조금 더 나아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겨주는 것으로 의미가 변해서 생김 관습 아닐까? 계대결혼과 기업 무르기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5.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낳을 아이는 죽은 자의 이름을 이어가게 된다(10). 결국 누구의 아이가 된다는 말인가?  
 말론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보아스의 아들이 된다. 룻이 말론의 아내라면 맘머느리네!
6. 보아스의 말(9-10)을 들은 장로들의 말(12)에 따르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낳은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 된다는 말인가?  
**보아스의 아들:** 다말이 낳은 베레스는 엘의 아들이어야 하지만(다말이 친척에게 씨를 얻는 것은 남편의 뒤를 잇기 위한 의도이기 때문) 유다의 아들이 된다. 보아스에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장로들의 축복으로 오벳은 말론의 아들(4:10)이 아니라 보아스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본래 계대결혼의 의미가 달라지는데? 첫 번 기업 무를 자가 괜히 포기했잖아? 반면에 여인들이 하는 말은 나오미의 손자다(14-15). 그러면 오벳은 두 사람 룻을 해야 하네!
7. 룻이 라헬과 레아 같게 되기를 빈다는 것(11)은 무슨 뜻인가?  
**후손의 번성:** 손이 귀한 집안에 12아들을 낳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많은 후손을 가지기를 빈다는 뜻이다. 남편도 없는 과부에게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8. 보아스가 에브랏(=베들레헴)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출생지가 된다. 마리아가 멀리 떨어진 나사렛에 있었지만 조상의 본적지에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이다.
9. 룻이 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인가?  
 손자를 얻어주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극 정성으로 시모를 모셨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10. 떼어내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찾으려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17).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개정). 나오미를 섬길 아들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오벳'(=섬기다라는 아바드의 분사형, 여호와와 종은 오바다)이라 하였다.
11. Happy Ending이기도 하고 Surprise Ending이라 할 말은?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사실은 이 한 마디를 하기 위해서 긴긴 이야기를 해온 셈이다. 그래서 룻은 위대한 다윗 가문을 세웠고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무심코 아름다운 이야기인줄로만 알고 읽던 사람이 이 한 마디에 깜짝 놀라게 된다. O Henry가 이런 방식으로 단편소설을 많이 남겼다.
12. 모압 족속은 별로 대접을 못 받았다. 시조가 그렇고(창 19장) 하는 짓이 그래서(민 22, 25장) 영원히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다(신 23:3). 그런데 룻이 다윗 왕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다.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13. 사사시대의 유명인(?)과 비교해 보면 나오미, 룻, 보아스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이런 사람을 진정한 영웅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보여 주고 교훈을 준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다. 전국을 뛰어다니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만 영웅인

가? 삼손이 없어서 교회가 이 모양인가? 눈에 보이는 것을 좇는 사람은 많아도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 날개를 사모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자기들이 처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을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14. 특별히 룻의 아름다운 점을 지적한다면 무엇일까?

**믿음으로 인생역전을 이룬 점:** 스스로 보잘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두운 시대(개판)에 이방인으로, 더구나 여자의 신앙으로 위대한 반열에 올라섰다.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 때문인데(신 7:3-4, 출 34:16) 그 반대의 결과가 생겼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